

“SD, ‘팔방미인’ 김하성과 장기 계약 서둘러야”



▲ 지난 7월29일 텍사스전에서 홈을 파고드는 김하성.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에게 4년 총액 2800만 달러를 안겨줬다. 샌디에이고 내야진의 텃스를 고려했을 때 김하성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샌디에이고 지역 매체 ‘이스트 빌리지 타임스’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김하성의 장기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4일 ‘OSEN’에 따르면 이 매체는 전날 “한국 또는 일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박리기에 진출하면 어느 만큼 활약을 펼칠지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면서 “김하성은 KBO리그 최고의 선수는 아니었지만 통산 타율 2할9푼4리 133홈런 134도루를 달성하는 등 7년간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마지막 시즌이었던 2020년 타율 3할6리(533타수 163안타) 30홈런 109타점 111득점 23도루로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이어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빼어난 활약을 펼친 김하성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김하성은 3일 현재 올 시즌 타율 2할8푼4리(345타수 98안타) 15홈런 41타점 60득점 22도루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스트 빌리지 타임스’는 “김하성은 3년 차 들어 박리급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다. 아직 서른 살이 안 된 김하성은 내년 시즌 후 FA 자격을 얻게 된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이 FA 자격을 취득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김하성이 리그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건 결코 과장된 게 아니다.”라며 “샌디에이고가 김하성과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김하성은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 A.J. 프렐러 단장은 샌디에이고의 보석 김하성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장기 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승 후보 독일 “또 한국이야?”

“2018년에 진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다.”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59)이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는 소식이 들리자 독일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런 우스개가 유행했다. 독일 남자 축구 대표팀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한국에 0-2로 패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빚을 갚았다’고 표현한 건 독일을 대표하는 공격수로 명성을 떨치던 클린스만 감독이 지도자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현재까지는 틀린 평가도 아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사령탑에 앉은 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A매치(국가대항전에서) 4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 축구에서 빚을 다 갚기도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 독일 여자 대표팀은 2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전에서 한국(17위)과 1-1로 비겼다. 이 무승부로 1승 1무 1패가 된 독일은 여자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독일은 2003년 미국, 2007년 중국 여자 월드컵에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



▲ 여자 월드컵 H조 조별리그 독일과의 경기에서 조스현이 팀의 첫 골을 넣은 후 동료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으며 이전 8차례 대회 때는 16강에서 패한 적도 없는 팀이었다. 이번 대회 때도 유력 우승 후보로 꼽혔다. 여러 조건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FIFA 랭킹 1위였던 독일 남자 대표팀과 비슷했고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FIFA는 이 경기가 끝난 뒤 “역사는 반복된다.”면서 러시아 월드컵 경기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띄웠다. 독일 매체 ‘빌트’는 “여자 대표팀마저 이 창피를...”이라고 제목을 달았고, 프랑스 매체 ‘레키프’도 “한국이 독일 축구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러 쿠니 사시미 **훗집**으로 오세요!

To go 환영



714.752.6658
www.kunisashimi.com
7550 Orangethorpe Ave., E100
Buena Park, CA 90621



KUNI
쿠니 사시미 훗집

단체 예약 환영
Opening Hours
Mon-Sat: 3PM-12AM
Sun: 3PM - 10:30PM